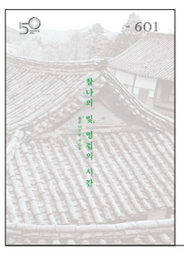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6~11/1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봄날에다시만나면:나는죽음을돌보는수행자입니다	능행	김영사	6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2	부처님의삶과가르침(1)	비구 범일	여시아독	7	네가지마음챙기는공부*대념처경과그주석서(초기불전001)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온계시초:출가이전소년시절의성파스님이지은한시모음	조봉주(성파스님)	통도
4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9	언어진실을전달하는가왜곡하는가(밝은사람들총서18)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운주사
5	철학자와함께읽는동화*동화인문학	이일야	담앤북스	10	마음닦는법	김재웅 지음	용화

책세상

사진으로 돌아보는 '불광' 50년, 불교 50년



찰나의 빛, 영겁의 시간
불광 50주년 사진집
안장헌 · 구본창 외 지음
월간 불광 / 3만원



관조 스님 作, 범어사 대중공양. 1992년 11월호 내지.

불광미디어, 월간 〈불광〉 창간 50주년
사진집 '찰나의 빛, 영겁의 시간' 발간
관조 스님 등 11인 사진 358점 게재
불광 연혁으로 지나온 50년사도 정리
매 호마다 불교 우수함 담은 사진 실어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광미디어(대표 류지호)가 월간 〈불광〉 창간 50주년을 맞아 '찰나의 빛, 영겁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창간 50주년 사진집(통권 601호)을 발간했다.

광덕 스님의 원력으로 1974년 11월 창간된 월간 〈불광〉에는 그동안 많은 글과 사진이 실렸다. 불교 역사에 큰 불사를 남긴 수많은 고승과 불자들의 밀도 있는 글과 당대의 불교를 기록한 사진들이다. 불광미디어는 월간 〈불광〉의 역사와 함께했던 사진작가 11명(관조 스님, 안장헌, 구본창, 강운구, 육명심, 한정식, 이갑철, 윤명숙, 하지권, 최배문, 유동영)의 사진으로 월간 〈불광〉 50년을 되돌아 봤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월간 〈불광〉은 매 호마다 소중한 불교의 시간을 사진으로 남겨 불교의 우수함을 알려왔기 때문이다.

사진집에는 월간 〈불광〉 창간호인 1974년 11월호부터 근래 출간된 2024년 9월호까지 책에 실렸던 사진 중에서 기록성이 높은 사진 위주로 선별한 358점과 표지 이미지 600점을 실었다. 사진 배치 또한 잡지에 실린 순서를 우선했으며, 몇몇 사진들은 편집 디자인을 고려해 적절히 배치했다. 선별된 각각의 사진들에는 당시의 캡션이나 글을 넣었고 바뀐 현재의 모습을 설명하는 글을 붙이기도 했다. 책 말미에는 '지나온 50년, 나아갈 100년 – 불광 연혁'을 함께 담았다.

책은 '1974~1988 걸음을 떼다' '1989~1994 눈을 뜨다' '1995~2004 부처님의 빛 불광을 담다' '2005~2011 산문을 넘다' '2012~2020 불광의 시간' '2021~2024 다시 산문에 들다' 여섯 단계의 시대로 나눠 구성했다.

관조 스님은 당시 일반인들은 쉽게 촬영할 수 없는 사진들을 선보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스님들의 교육공간인 강원의 모습, 발우공양 모습, 행자 교육 및 수계식 장면 등은 오늘날 재현하기 힘든 장면들이다. 관조 스님 사진의 묘미는 필터나 인위적인 조명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순함과 담백함에 있다.

안장헌 작가는 주로 자연과 성보를 촬영했다. 그는 렌즈와 필름 면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뷰카메라로 촬영해 피사체의 왜곡 없이 안정감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월간 〈불광〉 최초의 사진인 '상원사 동종 주악비천상'과 '석굴암 본존 및 보살상' '월정사 석조공양보살상' 등의 사진을 통해 옛 모습을 볼 수 있다.

윤명숙 작가는 〈불광〉 사진의 스펙트럼을 넓혔으며, 성철·광덕 스님 등의 다비 사진과 변형되기 전의 사찰풍경을 담은 사진은 귀중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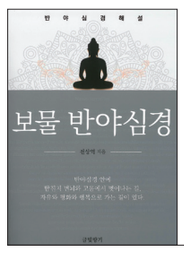
2007년부터 하지권 작가가 참여한다. 필름의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의 시대가 시작된다. 절집 구석구석을 담아내는 하지권 작가의 시선은 부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담으려는 듯 금강산과 인도·미얀마 등 해외불교로 향했다. 하지권 작가로 인해 '불광은 사진이지'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다.

2012년, 월간 〈불광〉은 표지를 포함 모든 면을 컬러로 바꾸었다. 판형도 커졌으며, 디자인 역시 보다 전문화됐다. 디자인과 사진의 비중이 커졌고 이미지 활용 빈도가 높아졌다. 2016년은 국내의 내로라하는 사진작가들의 불교 소재 사진을 실은 해였다. 관조 스님·한정식·강운구·육명심·구본창·이갑철 작가 등이 참여했다. 그리고 하지권 작가의 뒤를 이어 최배문 작가가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 어느 작가보다 광각렌즈를 과감하게 사용해 입체감과 현장성 높은 사진을 선보였다. 그런 과감한 시선과 적극성은 불교 무형문화 순례기획과 인물 촬영에서 빛을 발했다.

2021년부터 기획의 변화에 따라 사진도 달라진다. 전문성이 짙은 글의 어려움을 사진이 보완했다. 정보성이 중요한 본문 사진을 보완하기 위해 유동영 작가의 포토에세이가 전면 배치됐다. 현재까지 사진을 책임지고 있는 유동영 작가의 사진은 피사체 본연의 면모에 집중하기 위해 정면으로 맞서며 왜곡을 줄이고 있다. 불교성이 짙은 내용의 변화는 초기 필름 시대와 같은 카메라 형식을 모색한다.

이번 사진집에는 월간 〈불광〉이 걸어온 '50년'이 담겼으며, 그 50년에는 한국불교 1700년, 부처님의 2600년도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사진집에 실린 사진 한 장 한 장은 찰나의 시간에 만들어졌지만 그 찰나의 시간은 지나온 영겁의 인연과 앞으로 다가올 영겁의 시간을 함께 품고 있는 불가의 사진이다. 책에 실린 사진들은 어느 순간 역사가 되고 영겁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다시 공부하는 보물같은 '반야심경'



보물 반야심경
전상억 지음
글빛향기 / 2만3천원

전직 불자 공무원이 반야심경 해설서를 출간했다. 〈보물 반야심경〉이다. 저자인 전상억 불자는 30여 년간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퇴직 후 2년여의 집필을 통해 해설서를 완성했다.

해설서는 〈반야심경〉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석가모니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법, 십이연기, 사성제, 팔정도의 진리와 주요 불교 용어를 설명하고, 〈반야심경〉에 나오는 한자의 뜻과 깨달음의 명언들도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다.

주요 해설 중 하나다. '관자재보살'의 경우, 대부분의 해설서에서는 반야심경 내용을 관자재보살의 수행담과 가르침으로 보아 '관자재보살'을 고유명사인 명호로서 주어로 해석해 '관자재보살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저자는 반야심경 내용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아 '관자재보살'을 술어 동사로 시작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기 안에 있는 보살을 보라" 또는 "자기 안에 보살이 있음을 보라"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렇듯 이번 해설서에서는 기존 해설서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해설을 볼 수 있다.

저자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절에 다닌 불자임에도 불교의 가장 기본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반야심경〉의 내용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 늦게나마 〈반야심경〉 공부를 시작했다. 그래서 저자 자신이 불교 초보자의 입장에서 〈반야심경〉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찾아 정리하고 사유하며 해설서를 쓰기 시작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알리는 데 미력이나마 일조하여 많은 분들이 진정으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되고, 세상을 살기 좋게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자

도서출판 운주사 • 밝은사람들 총서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25,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20,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정준영 외/22,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20,000원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미산 외/20,000원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20,000원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외/22,000원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김성구 외/22,000원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권석만 외/20,000원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이필원 외/22,000원
의지, 자유로운가 속박되어 있는가 이필원 외/24,000원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이필원 외/25,000원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한상희 외/23,000원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로운 삶을 지향한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이고,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책은 불교(초기, 대승, 선)와 서양철학, 심리학 등의 시각으로, 지혜에 대한 지혜로운 통찰을 담고 있다.

이필원 · 장진영 · 김호귀 · 이진우 · 권석만 집필
신국판양장/값 25,000원



YouTube 유튜브에서
"밝은사람들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지난 학술연찬회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